

[나와 《길림신문》]

© 김영금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길을 기록



저자 김영금

금년은 《길림신문》 창간 40돌이 되는 해이다.
인생의 나이로 말하면 50도 안됐으니 청춘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40년 사이 《길림신문》은 나이에 비해 엄청난 일들을 해냈다. 나라를 위해, 민족이 걸어온 길

을 기록하기 위해 많이도 심혈을 기울였다.

내가 《길림신문》과 인연을 맺은 것은 1989년부터이다.

1988년 5월, 나의 소설집 《바다가에서 만난 녀인》이 중국조선족문단의 첫 녀성작가 작품집으로 출판되었다. 그 시기 북경, 료녕 등 지역의 출판사들에서 연변에 와 녀성작가 작품집을 내려고 물색하였었는데 료녕출판사에서 1985년도에 먼저 와서 물색하던 중 내가 선정되었고 한시기 자자하게 여러 신문, 잡지에 보도되고 평론도 실렸다.

그때 허봉남기자가 제일 먼저 와서 나를 취재해 《연변일보》에 실은 후 《길림신문》 리선근기자가 찾아왔다. 그는 내가 《연변일보》 문예부 기자, 편집으로 있을 때부터 통수중학교 교원으로 있으면서 글을 부지런히 써서 익숙한 사이였다. 후에 그는 길림신문사로 전근되어왔다.

그가 쓴 〈그녀의 세계—녀류작가 김영금과 그의 소설집 《바다가에서 만난 녀인》을 두고〉가 《길림신문》 1989년 12월 2일 3면에 실렸다. 그

때로부터 《길림신문》은 나의 ‘친구’로 되었다.

나처럼 키가 작은 길림신문사의 김청수기자가 특별히 인상 깊다.

그녀는 나의 창작연구모임, 출간모임 같은 소식을 빠짐없이 신문에 보도하였고 《길림신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창건 70돐 특별기획으로 내놓은 구술시리즈—‘문화를 말하다’ 프로젝트에 나를 보도하기 위해 여러 날 우리 집에 찾아와 취재하고 정리하느라 동분서주하였다. 하여 2019년 10월 10일부터 8차에 걸쳐 8개 면을 할애해서 대서특필로 게재하였다.

김청수기자는 나의 구술을 자세히 듣고 또 나의 여러 저서들까지 가져다 보면서 심혈을 기울여 정리하였다. 사실 이 구술은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집 이주사, 30년대 우리 시대 문인, 지식인들이 걸어온 험난했던 시기의 기록이기도 하다.

내가 또 특별히 감동된 일은 길림신문사에서 2022년에 연변인민출판사를 통해 중국조선족 100년 구술사 계열총서인 《문화를 말하다》를 출판

한 일이다. 주임위원 홍길남 사장의 기획하에 부주임위원 한정일, 유창진, 집필에 김청수, 안상근, 김태국, 리철수 등이 동참해 역사—문화사편, 예술편, 문학편으로 나누어 편찬했다. 이 책은 중국에 사는 우리 민족 문화발전의 소중한 역사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편’은 제1부에 김학철, 제2부에 림원춘, 제3부에 남영전, 제4부에 김영금, 제5부에 김학송(시인들 종합) 등이 실렸는데 《문화를 말하다》를 읽으면서 많이 감동되었다.

특히 ‘문학편’ 제4부 〈노랑머리 조선족 소녀의 60년 문화 탐색의 길—김영금 구술〉을 다시 읽으면서 지나온 어려운 세월을 회상하노라니 저도 몰래 눈물이 흘렀다.

요즘 남영전선생(시인이자 전 길림신문사 사장)의 회억록을 보면서 어려운 길을 끈질기게 걸어온 《길림신문》 초창기 임직원들에게 문학인으로 서 뜨거운 사의를 드리고 싶다.

앞으로 《길림신문》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업을 더 멋지게 해나가기를 기원한다.

© 마량 (马良)

장장 1,808 키로미터… 자전거로 쓰는 역사와 풍경의 시

6월 12일부터 29일까지 나는 18일간의 자전거 타기 대려정으로 길림성을 한바퀴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연길시에서 출발해 백산시, 통화시, 료원시, 사평시, 백성시, 송원시, 장춘시, 길림시를 거쳐 다시 고향 연변으로 돌아왔을 때, 자전거 미터기는 그동안 총 1,808.61 키로미터를 달렸다고 기록하고 있었다.

내 고향 연길시는 장백산맥 동쪽 기슭, 숲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분지에 자리잡고 있다. 6월 12일 오전 7시, 나는 자전거를 타고 길림성의 다양한 지역을 탐험하기 위해 환길림성 장도 려정에 올랐다. 334번 국도를 따라 달리며 ‘해란강변에 벚꽃향기 그윽하고 과일나무가 줄지어 서있고 춤 잘 추고 노래 잘하는 조선족’들로 유명한 조선족 마을들을 지나면서 저도 볼래 〈붉은 해 변강 비추네〉노래를 흥얼거렸다. 이 노래를 부르며 연변의 아름다운 여름 풍경을 감상하노라니 마음이 무척 즐거웠다. 어느덧 장백산도에서 가장 높다든 선봉령 기슭에 다달았을 때는 이미 흥분으로 가슴이 뛰고 있었다.

선봉령은 내가 자전거로 여러번 오르내린 적이 있는 지전거 타기 명품 코스이다. 20키로미터의 가파른 울리막과 20키로미터의 짜릿한 내리막이 어우러진 이 길은 자전거에 호가들에게는 꿈같은 코스이다. 선봉령의 장관을 이루는 산세와 아름다운 경치는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특히 정상에 서면 ‘도처에서 백로가 노래하고 제비가 춤추며 졸졸 흐르는 시내물과 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높은 길’이란 어느 명인의 시구가 저절로 떠오를 정도로 풍경이 아름답다.

해발 1,457미터의 선봉령 정상은



지역 자전거애호가들이 꼭 도전하고 싶어하는 곳이다. 선봉령을 넘어 해발 700~900미터의 장백산맥을 따라 삼림 속을 달리면서 나는 무성한 협곡과 시원한 산바람을 즐겼다. 기복 있는 길을 따라 강을 건너 백산시를 지나며 길림성의 교통 기초시설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국도부터 성도, 현도, 향도까지 모든 도로가 평탄하고 깨끗하며 사통팔달했다. 특히 통화시에서 송로시까지 이어지는 303번 국도는 넓고 안전한 쌍방향 도로였는데 중앙 분리대와 양측 보호시설이 완벽해 무척 안전함을 느낄

수 있었다.

려정중 길림성의 관광산업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음을 실감했다. 국가 A급 관광지부터 지역급 홍색관광지까지 다양한 관광 명소들이 잘 정비되어 있었다. 백산시와 통화시에서는 동북항일련군의 홍색관광지 표식을 자주 볼 수 있었는데 특히 양정우렬사릉원과 전투유적지가 인상적이었다. 사평시는 영웅적인 도시로 곳곳에 련사릉원과 기념탑이 세워져 있었다. 그중 사평기차역 북쪽에 위치한 ‘사평렬사 기념탑’은 4차 전역에서 희생된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모택

동주석의 ‘인민영웅들은 영생불멸하리라’는 비문이 새겨져있어 감동을 자아냈다.

사평시를 지나 송로평원에 들어서니 끝없이 펼쳐진 평탄한 들판이 눈앞에 펼쳐졌다. 이곳은 토지가 비옥하고 호수와 습지가 많아 생태계가 풍부했다. 특히 차간호는 한그물로 천만근의 물고기를 잡을 정도로 생태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유명하다. 송로평원의 들판과 습지에는 석유 시추대와 양유기가 우뚝 서있어 밤이면 불빛이 별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냈다. 농안현성에 도착했을 때는 천년전에 세워진 농안료탑이 눈에 들어왔다. 이 탑은 송나라와 얽힌 역사가 깊으며 남송의 명장 악비와 관련된 전설도 전해져 내려오는 등 역사적 의미가 큰 곳이었다.

장춘시와 길림시는 각각 길림성의 성도와 제2의 도시로 장백산맥과 동북평원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있다. 두 도시는 차량과 인파로 북적였고 고층건물들이 즐비해 도시 발전과 변화함의 극을 보여주었다. 비록 자전거로는 복잡한 도심을 달리기 불편했지만 이렇게 날따라 변형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다.

돌이켜보면 사람스러운 내 고향 길림성이었다. 장백산맥의 드넓은 삼림은 웅장한 기상을, 광활한 평원은 너그러운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았다. 물산이 풍부하고 자원이 풍족한 이 땅에서의 자전거 려정은 나에게 고향의 넓은 품을 느끼게 해주었다. 이번 려행을 통해 나는 체력을 단련하고 자신감을 키울 수 있었으며 길림성의 아름다운과 역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보낸 것으로 하여 긍지와 자랑을 느낀다.



/ 인민넷—조문판

[전망대]

7련승 기세로 남경서 첫 원정승 이룰가?



제 14 라운드 연변팀과 남통지운팀 경기의 한 장면 / 김파기자

홍장 7련승으로 순위 5위를 달리고 있는 연변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이 7월 6일 19시 30분에 남경시 오대산체육중심경기장에서 현재 4승 4무 6패로 16점을 기록하고 순위 11위에 머물러 있는 남경도시팀과 2025 화운유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15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된다.

올 시즌 전반기의 마지막 경기인 이번 경기는 연변팀이 상위권에 발을 든든히 붙이고 슈퍼리그 진출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매우 관건적인 경기이다. 현재까지 전반기의 홈경기를 승리한 팀은 갑급리그에서 연변팀이 유일하다. 하지만 광서평과, 정남갑련, 심수청년인 등 팀과 함께 원정에서 1승도 거두지 못한 팀중의 하나라는 것이 매우 부담스럽다.

남경도시팀과 연변팀의 상호 전적은 2승 2패이고 상호 원정에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최근 5라운드 경기에서 4승 1무의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연변팀의 경기력이 인정을 받는 가운데 최근 2라운드 경기에서 1승 1무를 기록한 남경도시팀의 경기력도 무시할 수 없다. 청도홍사를 홈장에서 2:0으로 제압하고 원정에서 막강한 료녕철인에 선제골을 넣고 40여분간 1:0으로 앞서다가 한풀 내주고 1:1로

손잡은 결과만 보아도 남경도시의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최근 2라운드 연속 득점한 42번 루페타의 경기력이 살아나 심히 근심스럽다.

4-4-2, 4-5-1, 3-4-3 등 진형을 다양하게 구사하고 있는 남경도시팀의 핵심 전술은 10번 오거부와 42번 루페타의 쌍갈 전술과 18번 동홍린의 매복습격이다. 거기에 호인천, 주계문, 양덕강(U21), 여몽휘(U21) 등의 전술적인 배합이 팀의 운명을 결정한다. 하기에 남경도시팀과의 경기는 역시 중원쟁탈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연변팀은 오거부와 루페타에 대한 대인방어를 철저히 하여 득점 기회를 주지 않는 전제하에서 중원에서부터 상대를 압박하여 진영을 밀고 들어가 자기 문전에서 혼전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루페타와 동홍린은 왕왕 혼전 가운데서 득점하기 때문이다.

상대의 득점을 불허하는 동시에 연변팀은 포브스의 엄호 속에 황진비의 개인 돌파와 왕자호의 파고들기를 잘 리용하여 득점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만약 황진비와 왕자호의 발끝에서 선제골이 나오면 연변팀의 시즌 첫 원정승이 남경의 오대산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가 생각한다.

/ 김태국기자

고준익, 동아시아컵 국가대표팀에 발탁

일전, 중국국가남자축구팀은 동아시아컵에 참가하는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국가대표팀은 젊은 선수들을 주축으로 하여 왕옥동, 류성우, 괴기문 등 ‘00 후’ 선수들이 여러 명 발탁되었고 조선족 선수 고준익도 선발되었다.

일전 중국축구협회는 이번 동아시아

아컵에 대리감독 태안 주르제비치가 팀을 이끌고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7월 7일부터 7월 15일까지 중국팀은 한국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컵에 참가하여 7월 7일 한국팀, 7월 13일 일본팀, 7월 15일 중국항향팀과 맞붙는다.

인민넷—조문판

성 직속기관 퇴직간부 당구경기 원만히 폐막



최근 길림성 직속기관 퇴직간부 당구경기가 성 직속기관 로간부활동센터에서 원만히 폐막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성 직속기관의 퇴직간부 근 50명이 참가, 3일간의 긴장하고도 격렬한 각축 끝에 종식 8구와 스누커 두 종목에서 각각 우승, 사무실 등 비공개구역은 참관을 사절한다.

성 직속기관 퇴직간부 당구경기는

한차례의 체육경기대회일 뿐만 아니라 로동지들의 정신품모에 대한 집중 전시이기도 하였다. 경기장에서 그들은 당구로 친목을 도모하고 기예를 서로 닦으며 가득한 열정과 당당한 모습으로 생활에 대한 사랑을 해석하면서 ‘궁정에너지를 더하고 중국꿈을 함께 이루자’에 계속해서 백발의 지혜를 이바지하고 있다.

/ 길림일보

청화대학과 북경대학, 여름방학 무료개방 시간 확정

여름방학에 접어들면서 대학들이 차례로 여름방학 참관 모드를 시작했다. 현재 청화대학은 월요일을 제외하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캠퍼스를 개방한다. 북경대학 여름방학 캠퍼스 개방 시간은 7월 7일부터 8월 16일까지이다. 두 학교는 모두 ‘추첨+즉시’ 예약 참관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있다. 캠퍼스 참관은 어떠한 기구나 개인에게서도 비

용을 받지 않는다.

수목청화(水木清华)와 연원북대(燕园北大)는 여름방학 기간 많은 관광객들이 반드시 방문하는 명소이다. 올해 북경대학은 캠퍼스 교수연구 질서를 보장하는 전제하에 ‘북경대학 참관’(参观北大) 위챗 미니응을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했다. 관광객은 빠르면 8일전에 추첨 예약에 참여하거나 7일전에 ‘즉시 예약’을 할 수

있다. 작년 여름방학부터 청화대학은 매 개방일마다 6,000명에게 개방하고 있는바 유람객들은 ‘즉시 예약’이나 추첨 예약 두가지 형식으로 학교에 입장할 수 있다.

또한 청화대학과 북경대학은 캠퍼스 방문에 대해 어떤 기구나 개인에게도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바 유람객은 공식 경로를 통해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신청해야 한다고 명확

히 규정했다. 유람객은 자발적으로 캠퍼스 환경위생을 유지해야 하며 캠퍼스내에 로점을 열거나 물품을 판매하거나 각종 확성 장비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큰소리로 떠들거나 다른 방식으로 캠퍼스 교수, 연구 및 생활 질서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교수, 과학연구, 사무실 등 비공개구역은 참관을 사절한다.

/ 인민넷—조문판